

음악·향기로 소환한 '80년 5월 광주'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기억하며 그가 겪었을 심경을 유범상 탭댄서가 춤으로 표현하는 모습.

선율 '5월 광주의 향기' 공연...의인들 삶 '향기' 모티브로 음악 무대 '담배' 냄새로 폭압적 분위기... '구절초'로 주먹밥 나누는 대동정신 재현 5·18 연상되는 5개 향기 배포...윤상원·박기순·안병하 등 의인 추모

1980년 5월을 떠올릴 때 저마다 연상되는 장면이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최후탄 자욱한 거리를, 또 어떤 이들은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참혹한 모습을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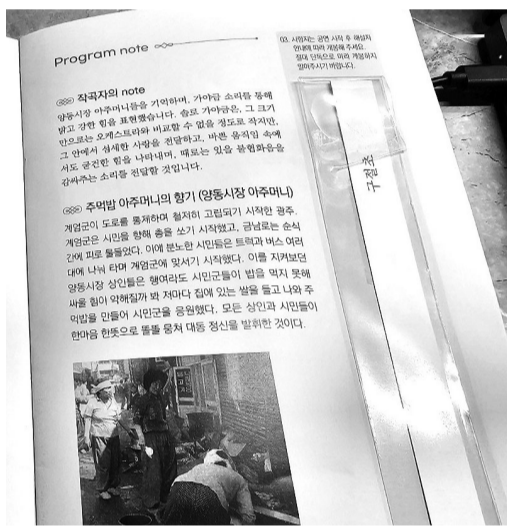
80년 5월이 연상하는 냄새들이 있다. 양동시장의 주먹밥, 병원의 소독약,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약 냄새 등등... 그 시절 광주를 가득 채운 것은 어떤 '냄새'였을 지 모른다.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시각적 이미지, 음악 등과 연계해 5월을 형상화했다. 이 같은 정형성을 깨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며 후각적 요소까지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25일 오후 광주 남구문화관에서 (사)선율이 마련한 '5월 광주의 향기'가 그것.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당시 의인들의 삶의 '향기'를 모티브로, 음악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최 측이 밀봉된 '시향지'를 리플렛에 부착해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나눠준 뒤, 인터미션(막간)에 향과 5월 의인들을 설명하면서 냄새를 맡게 했다.

5·18 의인들인 윤상원, 박기순, 안병하, 양동시장 아주머니 등을 음악으로 추모하고, 이들과 어울리는 향기를 시향지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광주대 예술대와 독일 뮌스터대에서 공부하고 공연 기획·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영 씨가 기획했다.

"5월 의인들의 아픔과 용기를 '향기'라는 매개체로 연계해 시민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조향업체를 통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다섯 개 향기를 만들었습니다. 공연을 보며 관객들이 아름다운 5월의 향도, 영령들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도 느끼길 바랍니다."



공연 시작과 함께 밀봉된 상태로 나눠준 시향지.

기획 과정과 공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돌아온 최 씨의 답이다.

가장 먼저 '광주 시민군의 향기'를 맡았다. 시향지에서는 초봄의 바람에 실려온 들꽃 같은 향기가 났다. 이와 맞물려 피아노, 오케스트라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했는데 향기와 음악 모두 밝은 느낌으로 전달됐다.

시민군의 향기는 광주 최초 노동자학인 '들불야학'에서 아학생들을 가르쳤던 박기순,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박기순과 영혼 결혼식을 올린 윤상원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을 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밝은 톤으로 연주됐는데, 5·18의 상흔 때문인지 비극성이 더해졌다.

'경찰의 향기'는 어떻게 표현될지 가장 궁금한 대목이었다. 최루탄 향기나 군화발에 흩날리는 흙내, 곤봉을 칠때 흩날리는 군경의 땀냄새 같은 악취가 연상됐기 때문. 경찰의 향은 고 안병하 치안

감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자욱한 담배(tobacco) 냄새와, 포근한 나무(woody) 향을 섞은 것이었다. 대조되는 두 향을 섞은 까닭이 궁금해졌다.

당시 계엄군이 마구잡이로 시민군을 폭행하자, 안병하 전남도경감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다'며 신군부의 명령에 불응했다. 이로 인해 그는 수감돼 고문을 받았고, 이후 후유증으로 유명을 달리 했다.

"폭압적인 1980년대 분위기는 담배 냄새로 표현하고, 강직했던 안병하의 의지는 나무 향에 담았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이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탭댄스도 이목을 끌었다. 유범상 탭댄서의 절도 있는 춤사위와 호루라기 소리, 오케스트라 음악 그리고 전·의경들의 출동 행렬이 결합된 장면은 그날의 아픔을 떠올리게 했다.

주먹밥을 나누며 대동정신을 발휘했던 양동시장 아주머니들의 향기는 '구절초'로 재현됐다. 섬세하고 포근한 엄마 품 같은 냄새가 공연장에 흩어졌다.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배고픈 시민군을 먹이고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꽃말처럼, 구절초 향은 특유의 향으로 광주 어머니들의 정신을 느끼게 했다.

가야금 연주도 들을 수 있었다. 서울대와 한양대 음악학과에서 공부한 정유경은 동·서양 악기를 크로스오버한 곡 '구절초'를 연주했다.

이와 광주 기록병원에 실려오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웠던 의료진의 향은 '스피어민트'로 전해졌다. 상쾌하고 건강한 향기는 늦가을 정취와 어우러져 차갑고 비극적으로 느껴졌다. 김범구 바이올리니스트와 아르스필하모니의 스트링 협연은 '불안'하고 '위태'롭던 병상의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대미는 '진리는 침몰하지 않는다' 멜로디를 변주한 곡이 장식했다. 음악은 어둠 속의 빛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빛'이라고 명명된 시향지를 코에 가져다 대자, 오월 영령들이 바라봤던 '빛'이 오감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색다른 공연 2선

다음달 2일 국악 관현악 산조 합주...9일엔 창극 선보여



전남도립국악단 '그린 국악'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전남도립국악단이 '아버지가 집에 와 계신 날 같은, 국악'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2일, 9일 이틀에 걸쳐 오후 4시 남도소리울터에서 다른 컨셉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2일에는 기악부 정기공연 '지휘자 없이, 악보 없이 키 큰 나무숲'이 펼쳐진다. 기악부 단원들이 1년간 공동제작한 작품을 연주하며 악보, 보편대, 지휘자 없이 추임새와 발림을 곁들이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소리를 기어다니듯 표현하는 '국악 관현악 산조 합주'가 막을 올린다. 이어 컨템포러리 시나위 합주 '내가 보이거든 울어라. Hunger Stones'도 감상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음악을 매개로 성찰하고 문명의 기로를 고민하는 공동제작곡.

이외 '우리악기 튼튼하기', 모음곡 합주 '남도 프른티어', '자자나무다'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9일은 창작부의 '컨템퍼러리 창극-심봉사, 뽕덕이네 고발 사건'을 볼 수 있다. 판소리 수궁가 중 '좌우나졸' 대목, 가야금 병창 '술비타령'이 울려 퍼진 뒤, 이면가락 창극 '심봉사, 뽕덕이네 고발사건'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피날레는 '물 흐르는 내력'이 장식할 예정이다. 정중인이 연출을, 최덕렬이 음악, 예술감독은 류형선이 맡았다.

총연출을 맡은 류형선 예술감독은 "과거 전통에 뿌리를 두고 오늘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악'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 전남 전통예술의 본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고뇌해 온 창작자들이 담겨 있는 공연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전남도립국악단 누리집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은빛블루스' 요양원·노인정 찾아 문화 나눔

서구문화원 노년 문화활동 사업 마무리...교육·공연 23회 진행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결합한 '은빛블루스'는 그동안 요양원, 노인정 등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 재능나눔을 펼쳤다. 어르신을 뜻하는 '은빛'과 느린 곡조의 춤인 '블루스'를 결합해 붙여진 이름이다.

'은빛블루스'가 지난 17일 모 요양병원에서 공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5차례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구문화원이 2023지역맞춤형 노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기획됐으

며, 지역 문화자원과 시낭송을 비롯해 극창작, 연기 등의 예술장르와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15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은빛블루스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매주 수요일) 사전교육 18회, 공연활동 5회 등 총 23회를 진행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창작 시와 사투리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쳤으며,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